



스타벅스 '탱크데이' 역풍에 밈 마케팅 경계령 L1



Life

올리브영 첫 매장 연다 세계 공략 본격화 L2



# 둘레길 숲 향기 따라, 청정 물길 따라... 발길 이끄는 생태정원

## 아파트의 미학(美學)

### 검단호수공원역호반써밋

검단신도시 총 856가구 수세권 단지 자연·사람 함께 호흡하는 공원형 조경

단지중앙 물길 이어지는 수경시설 조성 김경민 작가 '행복한 기억', 생기 더해

통창 가든하우스서 파노라마 조경 감상 깊은 숲속 산책길 재현한 외곽 둘레길 자연석과 소나무 배치한 자연형연못 푸른색 물방울 형상화한 조형작품도



1 단지 내 물길 따라 이어지는 중앙 수경시설. 2 가든하우스에서 바라본 수경시설. 3 어호선 작가의 '워터 컬럼(Water Column)-꿈꾸다'

최근 호수공원과 수변 조망, 산책로 등을 갖춘 이른바 '수(水)세권' 단지가 새로운 주거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계획형 신도시에서는 교통 접근성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중요해지면서 단지 안팎의 공원과 녹지 공간이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호반건설이 시공해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검단호수공원역호반써밋' 역시 수세권 단지다. 인천 서북부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는 검단신도시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856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계양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면 종점인 검단호수공원역에 다다른다. 지난해 연장 개통한 역

주변은 아직 공사가 한창이다.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올라가며 신도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역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검단호수공원역호반써밋 아파트가 보인다. 단지 인근 생활 인프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개통에 이어 서울지하철 5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추진 중이다.

단지 내부로 들어서니 동마다 계단과 함께 완만한 경사가로 설치돼 있었다. 유모차나 카트를 끌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각 동 출입구는 높은 층고와 넓은 개방감을 확보했다. 밝은 화강석 마감재가 입구 전면면을 감싸며 묵직하면서도 정돈된 분위기를 낸다.

단지 중앙부에는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대규모 수경시설이 마련돼 있다. 먼저 자전거 타는 가족을 형상화한 김경민 작가의 작품 '행복한 기억'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서로 다른 자세로 자전거를 타며 유쾌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은 단지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곡선형 흰색 구조물 역시 공원 한가운데 야외 전시장 같은 느낌을 준다.

여러 갈래로 뻗은 수로에서는 분수가 시원

하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수경시설 주변으로는 키 큰 수목이 둘러서 있어 도심 속 정원 분위기를 만든다. 물소리와 초록빛 조경이 어우러져 차분한 휴식 공간을 완성한다. 단지 중앙의 '가든 하우스'는 통창 구조로 설계해 조경시설을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주민들은 실내 소파나 야외 의자에 앉아 물소리를 듣고 산들바람을 느낄 수 있다.

단지 곳곳에는 지하 커뮤니티센터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다. 지하로 내려가면 실내 골프연습장과 주민 편의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전반적인 단지 분위기와는 색다르게 꾸며졌다. 마치 작은 단독 건축물처럼 지어진 모습이다. 이 단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외곽에 자리한 둘레길이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곡선 형태로 산책로가 이어진다. 낮은 관목들이 길 주변을 채우고 있어 마치 깊은 숲속 산책길을 걷는 듯한 분위기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에는 산책로를 감싸는 초록빛이 더 선명하다. 입주주민들은 이 길을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러닝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단지 내부를 연결하는 곳곳의 산책로와 수경시설은 단지 전체가 하나의 공원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생태 공간도 만날 수 있다. 옥생비오톱 공간에는 분홍빛 꽃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에는 나무 토막과 돌무더기를 쌓아 동물과 곤충들의 서식지로 조성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숨겨진 생태 정원이다.

자연형 연못을 구현한 수생비오톱 공간도 보인다. 크고 작은 자연석들이 연못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돼 있고 중앙 분수에서는 물줄기가 잔잔한 수면 위로 퍼져나간다. 작은 자연계곡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다. 새들이 잠시 내려앉을 수 있도록 나무 기둥 형태의 막대도 세워져 있다.



특히 연못 위로 길게 몸을 비틀며 뻗은 소나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쪽으로 굽은 수형이 물가 풍경과 어우러지며 동양 산수화를 연상시킨다.

푸른색의 대형 조형물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다. 어호선 작가의 '워터 컬럼(Water Column)-꿈꾸다'라는 작품으로, 물방울이 위로 피어오르는 듯한 형태를 하고 있다. 세 갈래의 커다란 물줄기가 하나로 모여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상부의 조형물은 언뜻 보면 단순한 패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꿈'이라는 글자가 촘촘하게 얹혀 있다. 작은 글자들을 하나하나 용접해 만든 작품이다.

테마파크 처럼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도 있다. 오두막 형태의 놀이시설이 작은 숲속 마을을 연상시킨다. 특히 공중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케이블웨이(cableway) 놀이기구는 아이들이 줄에 매달린 채 양쪽을 오가며 역동적인 움직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4 단지 외곽에 마련된 숲속 둘레길. 5 자연형 연못을 구현한 수생비오톱 공간.

/성채리 인턴기자



▲'1세대 연극 스타'故 윤석화에 문체부, 은관문 화훈장 추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반가사유상 요판화로 제작... 1750장 한정판 /사진 뉴스시스

▲김혜성, 샌디에이고전 4타수 1안타...오타니, 5이닝 무실점·시즌 8호포  
▲키움, 김태완 코치 사임에 보직 개편...이용규, 1군 타격 맡는다

▲베리오스,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MLB 토론토 마운드 '비상'  
▲JTBC, 북중미 월드컵 중계 사할...“최고 중계진으로 현장 전달”